

동행, 아프리카 학교건립 선서화전

4월 20일~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스님들의 소장 작품들이 지구촌 이웃을 돕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온다. 아름다운 동행(이장자 승, 이하 동행)이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마련 선서화전 을 4월 20일~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와 나무갤러리에서 연다.



송담 스님의 '산수'. 아름다운 동행은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마련 선서화전'을 4월 20일~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와 나무갤러리에서 연다.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학교 건립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진제 스님(조계종 종정), 경봉 스님, 송담 스님, 수안 스님 등의 선서화 총 500여 점이 전시된다. 동행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 소장 미술품 300여 점을 비롯해 선원 수좌화에서 기증한 30여 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작품 등 교계 각계에서 미술품을 기증 받아 여는 전시회"라고 설명한다.

스님들 소장 미술품 500여 점 전시

송담 스님, 운보 김기창 작품 등



경봉 스님의 달마도

이번 전시에서는 고승들과 유명 화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98년 종회회장 시절 혜정암에 걸렸던 설정 스님(수덕사 방장)은 "죽어도 선방에서 죽겠다"고 다짐하며 소임을 내려놓고 수행에 전념했다. 스님의 이런 수행의 경지를 보여주는 '무심'은 모든 번뇌와 망상이 소멸된 일심의 상태를 말해준다.

10년 묵언정진으로 깨달음을 얻은 송담 스님의 '산수'는 '금오산에는 천년에 달이요, 낙동강에는 만리에 파도가 일어났는데, 고기배는 어느 곳으로 갔고~/ 옛을 의지하여 갈대밭에서 자는구나!' 라는 시구를 담았다.

이밖에도 조계종 단일계단 수계산림 증사이자 원로회의 의원인 보성 스님의 '만선동귀', 중요무형문화재 제 48호 단청장이자 불화장 제118호인 혜석정 스님의 '달마

도'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의제 허백련, 심향 박승무, 운보 김기창, 남농 허근, 아산 조광원 등 유명 화백의 작품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016년 8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는 현재 10%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태이며 총 38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동행은 "2년전 선원 수좌회에서 선서화전을 통해 5억원을 동행 아프리카 학교 건립에 기부한 바 있다. 동행에서 주최하는 첫 전시로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개막식은 4월 2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실시되며 이날 KB국민은행 기금 전달식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02)737-9595 정혜숙 기자

새봄은 매화에게 첫 키스를 준다

만해기념관 '신춘 매화 그림전' 5월 31일까지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만해 스님의 만해 관련 시를 작품으로 옮겼다.

"쌓인 눈 찬바람에 아름다운 향기를 토하는 것이 매화라면, 거친 세상 괴로운 지경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이 용자니라. 꽃으로서 매화가 된다면 서리와 눈을 원망할 것이 없느니라. 사람으로서 용자가 된다면 행운의 기회를 기다릴 것이 없느니라. 무서운 겨울의 뒤에 바야흐로 오는 새봄은 향기로운 매화에게 첫 키스를 주느니라"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이 특별히 매화(梅花)를 좋아해 1932년 새해 아침에 남긴 글이다. 만해기념관(관장 전보삼)이 5월 31일까지 만해기념관 기획전실에서 '신춘 매화(梅花) 그림전' 을 연다.

만해기념관은 "만해 스님은 눈 서리치는 혹독한 시절 그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매

화처럼 지조와 절조, 품격을 유지하면서 민족적 자존을 지켰다. 설중매는 만해의 생애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만해 스님은 청년들에게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영동설한의 매화나무에 꽃이 필 때 차디찬 설중(雪中)에서 그윽한 향기를 토하는 것과 같으므로, 독립에 대한 노력과 희망을 가지라고 격려했다. 따라서 이번 특별기획전은 만해 스님의 이러한 염원을 꽃피우고 매화 향기를 통해 그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전시를 기획했다"며 취지를 전한다.

전시될 주요 작품은 만해 스님의 매화 관련시를 매화그림의 화제로 승화시킨 원로작가 홍석창 화백과 현역작가 강옥희 등 총 33점의 문인화를 전시한다.

정혜숙 기자

문화속에서 만난 佛敎

마음의 잔영 딛고 새로운 음악 펼쳐

2015 아카데미 3관왕

화제작 영화 '위플래쉬'



영화 '위플래쉬'는 천재 드러머를 갈망하는 학생과 그의 광기가 폭발할 때까지 몰아치는 폭군 선생의 대결을 그린 영화다.

업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미래에 선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선악의 소행(所行)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늘 의 나는 과거의 지은 인연의 결과이고 또한 미래는 현재의 오늘이 결정지어주는 것이라 말한다. 범부중생은 주어진 업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그 업이라는 것은 파나는 수행을 통해 뛰어넘을 수 있다고도 한다. 그래서 나를 극복할 수 있는 한계의 기반이기도 하다.

영화 '위플래쉬'는 천재 드러머를 갈망하는 학생과 그의 광기가 폭발할 때까지 몰아치는 폭군 선생의 대결을 그린 영화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 음향상, 편집상까지 3관왕을 석권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해 선댄스 영화제를 시작으로 140여개 영화상에서 수상 또는 후보작에 오른만큼 영화는 유명세를 탔다. 또한 위플래쉬, 카리안 등 배우들의 열연만큼이나 관객들을 매료시키는 다양한 재즈 선율도 큰 즐거움을 선사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영화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주인공 앤드류(마일즈 텔러 분)가 드러머로 거듭나는 그 치열한 심리 변화가 너무나 섬세하게 그려진 성장 드라마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구도의 과정을 통해 수행의 경지에 이르는 구도자의 삶과 닮아 있다.

스승 플랫처(J.K. 시몬스 분)의 지도 과정은 남다른. 상대의 열등의식을 끊임 없이 자극해 미치도록 몰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일차적 공격은 앤드류의 초라한 배경이다. 집안간 어머니, 가난한 아버지. 플랫처는 앤드류의 보잘 것 없는 집안 환경을 건드린다. 열등의식이 공격당하자 무의식이 일렁이기 시작했고 앤드류는 미친듯이 연습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울분을 털어버리듯 온몸이 땀

스승 플랫처, 앤드류의 열등감 자극 수행하듯 피나는 노력하며 질주 극단의 한계에 부딪히며 좌절 경험 참회와 성장 통해 새로운 경지 도달

에 흠뻑 젖을 정도로, 손바닥에 피가 흘러넘치도록 밤새 연습을 한다. 플랫처는 묘한 경쟁심까지 조장하면서 앤드류를 극단까지 몰고 간다.

하나의 목표, 최고의 드러머가 되겠다는 목표가 생기면서 미치도록 전진하는 앤드류. 불철주야 용맹정진 그는 드럼 삼매경에 빠지고, 결국에는 가슴 설레게 했던 여자친구에게 절교까지 선언한다. 하지만 그의 용맹정진에는 없는 게 있다. 바로 참회와 성장이다. 경주마처럼 달리니 그의 질주는 결국 벼랑 끝에 내몰리며 멈추어야 하는 시점이 오고 만다. 열등의식은 앤드류가 최고의 드러머로 가게 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앤드류는 그 도구의 벽에 걸리고 만 것이다.

중국 단하선사(739~824)가 낙양(洛陽)의 혜림사(慧林寺)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겨울 날씨가 하도 차서 법당의 목

불(木佛)을 꺼내다 불을 지폈다. 이것을 알게 된 그 절 원주스님이 달려오더니 펄쩍 뛰며 고함을 쳤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단하 선사는 태연하게 말했다. "나는 부처를 태워서 사리를 얻으려는 참일세."

그러자 그 원주는 더욱 화를 내며 대들었다. "목불인데 무슨 놈의 사리가 있단 말이오!" 오히려 단하 선사는 호통을 치며 말했다.

"만약 사리가 없는 부처라면 불을 뿜다고 해서 나를 책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 앤드류에게 열등의식은 목불에 불과했다. 지나온 시간의 그림자, 화난 업장의 야생마가 그를 달리게 했다. 그는 이제 목불을 버릴 차례다. 그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연주자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위플래쉬'는 우리에게 되묻는다.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마음의 그림자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음의 그림자가 만들어온 현재의 업을 뛰어넘기 위해 당신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흑목불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지구산업

3칸겹집 목조건물: 11,000mm×6,000mm×4,800mm ■ 가격: 평당 1,500,000원

다그라스목재기둥 180×180×2700 / 다그라스 대들보 180×210
다그라스목재도리 180×180 / 다그라스서까래 100×100 / 목재판재 120×18
전통강기와 주춧돌 300×300×300 ※ 황토벽 ALC 블럭 내화벽돌 판매 자유 선택

원하는 평수 가능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조립식 평상: 1800×1030×400mm 분기세 별도
가격 29만원 → 할인가 19만원
폴리프로필렌 지재 - 기둥 110×90×400 / 도리 80×35 / 중간대 80×35 / 마루판 210×12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www.지구산업.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

자연산 구지뽕

묘목 분양 (3년, 5년생)

무노동으로 (2,000평) 연봉 1억이상 가능!!

- 구지뽕 나무는 잎파리, 가지, 열매, 뿌리 등 전체를 건강식품,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고혈압, 당뇨, 근골강화, 면역력 증진에 특효)
- 최고 소득 작물로서 자연산은 한번 심어 놓으면 300년이상 사찰자립에 꼭 필요한 나무입니다. (500년 이상도 가능)
- 무농약, 무비료, 무퇴비로 키워야 더 좋으므로 사찰자립, 귀농귀촌, 은퇴 후 생활에 최적의 고소득 효도나무입니다.

▶3년생 7,000주 ▶5년생 5,000주 보유중

개복숭아 묘목분양 (1년생)

강원도 350고지 이상의 토종 자연산 씨앗으로만 발아

- 무농약, 무비료 노동력 無
- 열매속기, 발매기가 전혀 필요 無
- 꽃이 황홀해서 관상수로도 최고!
- 한번 심어 놓으면 150년이상 수확 (300년 가능)

※ 전국 최대 묘목 보유! (50주이상 주문 부탁)

구입문의 010-9608-2356(충주농원)
입금계좌 : 농협 123-02-311652 (이상국)

신간! 실증설 5개국어판

대원문재현 선사님의 70 번째 저서 출간!

대원문재현 선사님이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출연한 펜을 들어 일시에 세내려간 실증설!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도리로 가득찬 이 책이 드디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더하여 5개국어로 편찬되었다.

禪의 일상, 禪의 누림!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찌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선사님 서문 중에서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